

「薛生傳」과 야담 〈薛生 이야기〉 비교 연구

- 傳과 野談의 거리

정슬미*

- I. 서론
- II. 「설생전」의 양식적 파격과 주제의식
- III. <설생 이야기>의 傳的 근접성과 주제의식
- IV. 결론 - 전과 야담의 거리

<국문 초록>

본고는 전과 야담의 근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西坡 吳道一(1645~1703)의 「설생전」과 辛敦復(1692~1779)의 야담집 『鶴山閑言』에 실린 <설생 이야기>를 비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야담과 전 양식 간의 교섭과 轉移 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 두 양식의 문예적 특질 및 기능과 한계를 밝혔다.

「설생전」은 전의 양식적 파격을 보인다. 작품에 이야기투를 쓴 점과 조선후기 산수유기의 감각적 묘사를引入한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파격적 양식은 입전인물인 ‘설생’보다 ‘벗’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작품의 창작 동기 및 주제의식과 깊이 연관된다. ‘벗’은 기실 오도일의 조부 오윤겸인바 오도일은 이 작품을 통해 ‘隱顯’의 기로에 놓인 두 인물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그려내면서 정치적 변란 속에서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뿐 아니라 설생의 ‘회룡굴’을 다녀온 대

* 인하대학교 강사.

목이 짙막한 遊記처럼 구성된 것은, 수많은 政變이 있던 숙종 재위 당시 ‘顯’의 입장을 택한 그 자신이 탈속적 공간에서 잠시나마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자 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설생 이야기>는 야담이지만 그 창작 배경에는 전의 입전 동기와 비슷한 의식이 자리하므로 『설생전』에 비해 오히려 입전 인물인 설생에 집중하여 서사를 진행한다. 더구나 『설생전』을 문헌적으로 참고하였으므로 <설생 이야기>는 『설생전』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설생 이야기>는 설생이 거처하는 유토피아를 통해 情欲을 긍정적인 점에서 과거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설생전』에 비해 신비적 요소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전과 야담의 교섭과 전이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중요한 정신사적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정신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두 작품이 각각 ‘전’와 ‘야담’이라는 다른 양식 안에 담김으로써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두 작품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양식 간의 교섭을 살필 수 있는 한편 각 양식이 여전히 고유하게 담당하였던 기능과 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핵심어: 야담, 전, 설생전, 학산한언, 장르 교섭

1. 서론

본고는 서사 장르 간의 상호 교섭이 활발했던 조선 후기 傳과 野談을 대상으로 그 형식과 의식지향 同異의 몇 가지 국면을 검토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양자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표적 사례인 西坡 吳道一(1645~1703)의 『설생전』과 辛敦復(1692~1779)의 야담집 『鶴山閑言』에 실린 <설생 이야기>²⁾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야담 같은 전’과 ‘전을 개

1) 조선 후기 서사 장르의 운동과 교섭 양상은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에 자세히 다룬다.

작한 야담'의 문학세계를 점검하면서 조선 후기 야담과 전 양식 간의 교섭과 轉移 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 두 양식의 문예적 특질 및 기능이 가치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야담과 전은 조선 후기에 대거 창작되며 지속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해 갔다.³⁾ 그 중 이른바 '한문단편'이라 칭해지는, 소설적 성향을 지닌 작품군의 경우 문예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야담에서 출발했건 전에서 출발했건, 이들 작품군은 공히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나간다는 상동성을 보여 종종 묶여서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소설·설화·야담·전이 상호 교섭한 까닭에 장르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작품도 많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 구분이 모호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야담과 전의 서사에 과연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생기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문 단형 서사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한 80~90년대 선행 연구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당시 장르론이 다수 제출되어 전과 야담의 창작 동기와 원리, 그 세계관 등이 상당 부분 구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가 주목되었다.

전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90년대까지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었다.⁴⁾ 전은 본디 '역사와 문학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사실적 성격과 허구적 성격의 간극이 논쟁처가 되었다.⁵⁾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立傳 인물의 성격이나 계층이 다양해지고

2) 『학산한언』의 작품들은 제목 없이 수록되었으므로 본고에서 편의상 <설생 이야기>로 칭한다.

3) 정환국, 『한문소설사 서술의 체문제 -한문학에서의 한문소설, 그 사적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제64집, 2016, 130~131면.

4)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균태, 『전의 장르적 고찰』, 『우전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조태영, 『전양식의 발전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조태영, 『전의 서술양식의 원리와 그 변동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2집, 경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박희병, 『한국한문학에 있어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1989;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説의 性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5) 전의 역사적 성격과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명호, 앞의 책, 657~666면 참조. 이 연구는 전이 '역사'로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문학'으로서 한 개인의 정기를 통해 인간

작품의 허구성이 강화되므로 이 시기 전들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문학 양식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역사·사회·문학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 확인적·사실 지향적·유교 중심적 특질에서 이탈하여 가치 모색적·허구 지향적·체제 비판적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창작된다.⁶⁾ 『설생전』은 야담적 취향과稀奇趣向을 보여주는 한편 가치를 모색해나가는 점에서 조선 후기 전이 변모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바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⁷⁾

한편 야담은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양식으로서 그 장르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문제가 당시 연구의 주된 과제였다. 야담의 記錄性 이전의 口演性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문헌설화’로 보았다.⁸⁾ 그러나 『이조한문단편집』에 수록된 대다수의 작품에서는 설화⁹⁾와 변별되는 지점이 특정 작품을 ‘한문단편’으로 분류하고 그 양식을 범주화하는 데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 자료집의 편찬 이후에는 사실주의적인 작품군을 선별하여 ‘한문단편’으로 칭하거나, 야담 자체는 설화·일화·소설 등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인 ‘복합장르’로 규정하되 그 중 소설적 특질을 지닌 작품군은 ‘야담계 소설’로 분류하는 방법을 취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었다.¹⁰⁾ 야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의 보편적 유형을 탐구한다고 보았다.

- 6) 박희병, 앞의 논문, 1991, 11~16면; 296~297면 참조. 조태영 교수도 전이 ‘동태적 상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전은 史官이 지은 列傳과 ‘史官’이 아닌 ‘世人’이 사사로이 지은 私傳으로 나뉘고 私傳 중에서도 逸士傳에 해당하는 작품은 “열전의 공적 인간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사적 휴머니즘”에 바탕하고 있어 허구적 요소의 개입이 가능해진다(조태영, 앞의 논문, 479면).
- 7) 박희병, 앞의 책, 한글사, 1992, 217면. 『설생전』에 이야기투가 차용된 양상은 ‘조선 후기 이야기 구연’에 초점을 맞춘 연구(진재교, 『구연 전통과 이조 후기 서사양식의 변모』,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2, 2001)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8) 조희용, 『조선후기의 문헌 설화 연구 : 계서야담·청구야담·동야회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 9) 이 논문에서 ‘설화’란 구연되던 이야기를 가리킨다.
- 10) 임형택 선생은 야담이 설화와 변별되는 지점을 이조 후기 역사현실을 꿰뚫고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주의적’ 면모로 들고, 야담이 근대 단편소설과 근친성을 보이되 근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두지 않으므로 ‘한문단편’이라 명명한다고 하였다(임형택,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2001, 51~54면). 박희병 교수는 설화적 사유의 현실주의가 야담에서는 구체적이면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다고 하였다(박희병, 앞의 논문, 288면). 또 ‘한문단편’과 ‘야담’은 서로 포함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점, 한국 문학사

사실주의적 성격 외에도 민중성·허구성·흥미성·일상성 등이 지적되었다.¹¹⁾

이상의 선행 연구는 전과 야담의 특질을 적실하게 밝혀냈다고 생각되며 특히 조선후기 서사 양식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양식의 ‘관계’를 통해 특정 양식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¹²⁾는 본고의 방법론에 좋은 시사가 된다. 단, 선행연구는 당시 소설에 대한 발달사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까닭에 주로 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개진하였으나 본 연구는 소설적 측면 보다는 야담과 전의 비교 작업에 주안점을 둔다.¹³⁾ 아울러 선행 연구는 여러 작품을 두루 고찰하면서 전과 야담의 차이를 살폈다면 본 연구는 우선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의 작품론을 개진하고 이 두 사례를 토대로 전과 야담의 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생전』은 야담의 수법을 차용한 전일 뿐 아니라, 이러한 양식상의 차용·교섭이 ‘出處 葛藤’이라는 사대부의 정신사에서 중요한 문제를 담으려는 작가의식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야담 <설생 이야기>는 언뜻 보면 다른 작품군에 비

에서도 고유의 ‘단편소설’에 해당하는 작품군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담에서 출발한 단편소설을 ‘야담계 소설’로 명명하였다(박희병, 『야담과 한문단편 장르 규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8집, 한국한문학회, 1985, 322~325면). 한편, 이강욱 교수도 야담을 복합장르로 보되 설화와 변별되는 부분은 서술시각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제약상 및 그 속에서의 각 계층의 의식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조선후기 야담집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42~43면). 야담의 ‘일상성’에 대해서는 김준형, 『야담의 문학 전통과 독자적 갈래로 변진』(『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에서 다룬 바 있다.

11) 야담의 민중성에 대해서는 『이조한문단편집』(일조각, 1973)에서 지적된 이래 다수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었다. 허구성·흥미성에 대해서는 정명기, 『전과 야담의 옛물림』(『한국언어문학』 제33집, 한국언어학회, 1994), 정명기, 『『청구야담』에 나타난 전대문헌 수용양상 연구』(『淵民學志』2, 연민학회, 1994)에 자세하다. 또, 김상조는 야담의 특징을 ‘허구적 리얼리티’로 보았다(김상조, 『필기·패설·야담』,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2001, 보고서, 183~205면).

12) 박희병, 앞의 논문.

13) 본 연구가 이러한 입각점을 가진 최초의 연구는 아니다. 야담, 전, 記事, 詩文 등 한문학 제양식을 비교한 진재교 교수의 논문은 ‘소설화 정도’에 주안점을 두면 자칫 한문 서사 양식의 가치가 소설적 완성도에 따라 재단될 수 있다 하였는데(진재교, 앞의 논문; 진재교,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 전, 야담, 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본고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한편 논지 전개 과정에서 ‘구연’을 부분적 요소로 다루는 점에서 변별된다. 또 형식 뿐 아니라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야담의 ‘허구적 리얼리티’를 논한 연구(김상조, 『필기·패설·야담』,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2001, 보고서, 183~205면)는 본고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해 야담의 ‘전형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닌 까닭인지 연구사에서 전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설생 이야기>는 소재적으로 신선을 다룬 데다 전 양식을 취한 『설생전』에 비해 묘사가 오히려 소략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설생전』과 양식적으로 근접해있으면서도 야담으로서의 속성을 강화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본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앞선 연구에서는 당시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대체로 야담 텍스트를 주로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야담 <설생 이야기>를 논할 때 ‘야담’과 ‘19세기 야담집’의 성격이 혼합되어 서술된 면이 있다. 본고가 『학산한언』의 <설생 이야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II. 『설생전』의 양식적 파격과 주제의식

1. 서사성의 강화 및 조선후기 山水遊記의 묘사

본 장은 『설생전』에 보이는 전의 양식적 파격과 작품의 주제의식이 갖는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설생전』은 인정 정보-행적부-논찬으로 이루어져 전의 기본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그 구체적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전의 양식에서 벗어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의 경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인물	전	야담
薛生	① 서울 남쪽 靑坡洞에 薛生이 삶 ② 설생은 義氣가 있고 문장을 잘했으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함 ③ 설생은 仁穆大妃 廢母事件을 보고 은거를 결심함 ④ 설생은 평소 뜻을 함께한 벗을 초청해 함께 時事를 논하며 비분강개함 ⑤ 벗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자 벗은 가고 싶지만 부모가 살아있다면 거절	① 靑坡洞에 薛生이 삶 ② 설생은 義氣가 있고 문장을 잘했으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함 ③ 설생은 仁穆大妃 廢母事件을 보고 은거를 결심함 ④ 벗 吳允謙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자 오운 겸은 부모가 살아있다면 거절함

<p>합</p> <p>⑥ 설생은 홀연히 떠나고, 벗은 종종 그의 거취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함</p> <p>⑦ 仁祖反正 이후 벗은 벼슬길에 오름</p> <p>⑧ 벗이 강원 관찰사일 때 永郎湖를 유람함</p> <p>⑨ 안개 낀 영랑호에서 설생이 배를 타고 나타남</p> <p>⑩ 벗은 설생과 환담하고, 설생이 산다는 回龍窟에 함께 가기로 함</p> <p>⑪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내려 산 깊숙이 가니 회룡굴이 나타남</p> <p>⑫ 회룡굴은 무릉도원이며, 내오는 채소도 珍味임</p> <p>⑬ 벗이 며칠 머물다 설생에게 산중에서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냐 물음</p> <p>⑭ 설생은 전국을 유람하며 마음에 드는 곳마다 땅을 개간해서 산다고 함</p> <p>⑮ 벗은 후일을 기약하고 작별을 고향</p> <p>⑯ 설생이 훗날 약속대로 서울에서 벗을 방문함</p> <p>⑰ 벗이 이조판서를 지내고 있어 설생을 천거하려 했으나 설생은 그것을 욕되게 여겨 떠남</p> <p>⑱ 벗이 회룡굴을 찾았으나 그곳은 비었고 설생은 간 곳을 알 수 없음</p> <p>⑲ 論贊</p>	<p>⑤ 仁祖反正 이후 오윤겸은 벼슬길에 오름</p> <p>⑥ 오윤겸이 강원 관찰사일 때 永郎湖를 유람함</p> <p>⑦ 안개 낀 영랑호에서 설생이 배를 타고 나타남</p> <p>⑧ 오윤겸은 설생과 환담하고, 설생이 산다는 回龍窟에 함께 가기로 함</p> <p>⑨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내려 산 깊숙이 가니 회룡굴이 나타남</p> <p>⑩ 회룡굴은 方丈山이며, 내오는 채소와 인삼정과, 珍味에 시중드는 첩들도 아름다움</p> <p>⑪ 오윤겸이 며칠 머물다 설생에게 산중에서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냐 물음</p> <p>⑫ 설생은 전국을 유람하며 마음에 드는 곳마다 땅을 개간해서 산다고 함</p> <p>⑬ 오윤겸은 속세의 삶이 부질없다고 느낌</p> <p>⑭ 오윤겸은 후일을 기약하고 작별을 고향</p> <p>⑮ 설생이 훗날 약속대로 서울에서 오윤겸을 방문함</p> <p>⑯ 오윤겸이 이조판서를 지내고 있어 설생을 천거하려 했으나 설생은 그것을 욕되게 여겨 떠남</p> <p>⑰ 오윤겸이 회룡굴을 찾았으나 그곳은 비었고 설생은 간 곳을 알 수 없음</p> <p>⑱ 評語</p>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두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형상, 서사의 진행 순서와 내용은 아주 유사하다. 무엇보다 두 작품은 ‘양식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다. 특히 『설생전』은 傳聞에 의거해 지어졌으며 ‘이야기투’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의 야담적 취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¹⁴⁾

예컨대 ①단락은 전통적인 전과는 달리 시공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으로 인물을 보여주는바 ‘말하기-듣기’의 구성 원리에 입각해 있다.¹⁵⁾ ①~④

14) 박희병, 위의 논문, 96~98면.

15) 진제교, 앞의 논문, 522~523면.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靑坡里는 지금 서울 남쪽으로 반리쯤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 어떤 서생이 살았다. 義氣가 있고 문장을 잘하는 奇士였다. 과거 시험공부를 했으나 奇趣가 있어 결국 운이 좋지 못했다. 光海君 말 癸丑年 화가 일어나자 세상을 기꺼하지 않아 은거하고자 하여 벗에게 집을 방문해 달라 청했다. 그 벗은 평소 뜻을 함께하던 사람이라 함께 손뼉을 치고 慷慨해하며 時事를 논함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이 말했다. “윤리와 강상이 멀려라 하니 선비로서 어찌 이 세상에 처하겠는가? 나는 은거하려 하는데 자네도 마음이 있는가?”¹⁶⁾

본디 전의 서두에서는 家系를 포함한 인정 정보와 입전 인물의 정확한 이름 및 품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입전인물은 가계가 누락됨은 물론 ‘설생’이라 칭해지며, 그의 품성 제시 역시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해 정황을 제시한 대목으로 여겨진다.¹⁷⁾

더구나 아래로 이어지면서 입전인물 설생과 비슷한 비증을 차지하는 ‘벗’이 등장한다. 이 ‘벗’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도 이 작품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어지는 사건의 서술도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행적과 내면을 전하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며, 의기가 상합하면서도 대조적인 인생의 길을 걸은 두 인물의 화합과 갈등을 그려 이야기적 흥미를 더욱 강화한다. 끝으로 오도일은 논찬을 시작하기 전에 인물의 행적부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隋城에 사는 崔生 聖胤에게 들었다”¹⁸⁾ 하여 이 작품이 설화에서 온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생전』은 구연 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는 야담의 채록 과정 및 그 글쓰기 방식과 다분히 근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설화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文飾을 가한 점에서 특별하다.¹⁹⁾

16) “靑坡之里，在今京城南半里所，有一鱣生居焉。有氣義好文辭，奇士也，業科坐奇，竟不利。光海未癸丑禍作，不樂於世，欲逃隱，屬有其友人躋其門而訪焉。其友人者，卽不素所同志士也，仍與抵掌感慨，談時事，涕簌簌下也。且曰：‘倫常滅矣，士而奚處斯世爲？吾將隱矣，子其有意乎？’ 오도일, 『설생전』, 『서과집』, 『한국문집총간』 v.152. 이하 『설생전』 인용문에 대한 원문은 모두 이 문헌에서 참조하였다.

17) 박희병, 앞의 논문, 97면.

18) “傳其事於余者，隋城居崔生聖胤甫也。”

19)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소설적 경사’를 보이는 요소로 지적하였다(박희병, 앞의 논

벗이 설생과 재회하기 직전의 풍광이 “비가 계속 내려 물가는 씻은 듯하고 물결 빛이 옥 같았다. 먼 산 아지랑이에는 검푸른 빛이 어른거리고 강을 따라 해당화가 만발했는데 마치 목욕한 듯 난만히 피어 있었다”²⁰⁾와 같이 묘사된 것은 『설생전』의 짙은 문식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일찍이 지적되어 왔다.

곧 이 작품은 ‘전’임에도 강한 서사성과 형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야담적 취향이나 소설적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편, 조선 후기 문단의 흐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²¹⁾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설생전』에 특히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글쓰기 방식을 답습하는 양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설생전』은 설생과 벗이 永郎湖에서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 이래로 줄곧 벗의 시점을 통해 주변을 묘사한다. 설생과 벗이 회룡굴로 향하는 움직임에 따라 서사가 시간순으로 진행되며 그러한 한편 벗의 눈에 보이는 풍광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① 어스름할 무렵 물에 다다라 하인들을 물리치고 중을 시켜 가마를 메게 했다. 골짜기를 따라 힘들게 가는데, 수 리 쯤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으니 깎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잘린 것으로出奇奇怪하고 길이가 수십 리는 되고 가운데가 특트여 있었다. 벼랑을 에워싼 좌우로 물이 팔팔 흘렀는데 서로 메아리를 울리듯이 뽐어댔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 옆이 바로 이른바 回龍窟이었다. 문 앞에 돌길이 굽이굽이 있고 오른쪽으로 낭떠러지가 꺾어져 새들 길 같았다. 벼랑 끊어진 곳으로부터 서로 넝쿨을 부여잡고 매달려 가다가 몸을 움츠러 굴 안에 들어가니 곧 설생의 집이었다.²²⁾

문, 58면).

20) “甲戌，出持關東節，以其年三月，巡到杆城，航于清澗亭之南之爲永郎湖者，湖號絕特，爲關東最。屬天雨，渚岸如洗，波光漾碧，遙山翠黛，出沒於嵐氣中，夾江海棠花盛開，爛漫如浴。”

21) 明代 前後七子の 영향을 받은 일군의 조선 후기 작가들의 史體에는 의론성보다는 서사성과 형상성이 다분히 나타난다. 하지영, 『王世貞과 조선 중·후기 한문 산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216면.

22) “薄晚抵陸，屏騎從，俾白足肩輿，循林谷間蹙蹙行，甫數里許屏騎從，俾白足肩輿，循林谷間蹙蹙行，甫數里許，有蒼崖兀然立，非斲自削，怪怪奇奇，長可數十丈許，中坳環崖。左右水瀾瀾鳴，相噴薄如應響然，崖前有一門，門之榜，卽所謂回龍窟云。門前石路繚而曲，右折作磔，如鳥道形，由崖坳處，相與攀藤葛挽懸，縮肩僂而入窟之內。”

㉠ 함께 우거진 아름다운 숲에 앉고 곁에 있는 바위 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숲에서 가벼이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책하였다. 고기와 새가 사람과 가까이 했고 구름과 연기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무릇 林谷과 水石이 공교롭고 괴이하며 신기하고 훌륭하여 사랑스럽고 볼 만한 壯觀이 아침저녁으로 자태를 만 가지 천 가지로 바꾸어 보이니 巧曆이라도 형용할 수 없었다. 공은 문득 기뻐 돌아갈 것을 잊었다.²³⁾

인용문 ㉠은 벗이 설생을 따라 회룡굴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서술한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움직였는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러는 중에 마주한 풍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괴한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자연물이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²⁴⁾ 인용문 ㉡은 회룡굴에 도착한 벗이 아름다운 자연을 美的으로 완상하는 대목이다. 벗이 깨끗하고 탈속적인 자연 속에 거닐면서 세속의 티끌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²⁵⁾ 두 인용문 모두 벗, 즉 유람자의 시선으로 자연물을 묘사하되 시간적 순서를 따른다는 점에서 遊記的 글쓰기 방식이 차용되고 있다.²⁶⁾

23) “仍與之翳佳林而坐，旁石磯而漁，婆娑乎林樾，散步乎池塘，魚鳥親人，雲煙娛懷。凡林澗水石詭怪奇壯之觀之可愛而可觀者，朝夕獻狀，萬千其態，雖巧曆莫可狀。公輒怡然忘歸。

24) 일반적으로 산수유기에서는 아름다운 경치 묘사와 함께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곧 목적지까지 찾아가기까지 길이 얼마나 험난지, 그러는 중에도 풍광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박희수, 『동계 조귀명 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0면.

25) ‘산수기’의 교술자라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고 음미하며, 산수에 대한 미적 인식은 작자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淨化한다. 박희병, 『한국산수기(韓國山水記) 연구 -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217~223면.

26) 여기서 山水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심미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특히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글쓰기 방식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17세기 이후 조선 문인들은 명나라 유기를 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나라 유기에 차용된 小品의 글쓰기도 애호되었다. 더구나 金昌協·金昌翁 형제가 자연을 道學的 대상이 아니라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를 기발하고 선명하게 형상한 것을 중시한 이래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강혜규, 『18세기 산수유기의 轉變 양상』, 『한국한문학회』 제65집, 한국한문학회, 2017, 245면.

2. 정치적 변란 속 出處 葛藤과 超俗의 꿈

『설생전』이 비록 인정정보-행적부-논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야기적·遊記的 특징을 갖추었다면 이 작품은 상당히 가벼운 필치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주제의식은 또 ‘士의 出處義理’를 다루고 있어 그리 간단치 않다.

<표>의 내용단락에서 살필 수 있듯이 『설생전』의 서사에는 은거한 설생과 출사한 벗의 대조적 삶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그리고 논찬부에서 작가는 『周易』 『乾卦』의 文言을 인용하여 “즐거운 세상엔 나아가고 근심스런 세상에선 물러난다[樂則行憂則違]”는 구절로 포문을 열며 이것이야말로 선비가 숨고 드러나는 도리[顯晦之道]라고 한다.²⁷⁾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건대 『설생전』은 ‘士의 出處義理’를 고민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설생전』이 士禍가 빈번히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 입장을 담은 글인가? 결론부터 제시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작품은 정치성이 농후하게 드러난 글이라고 여겨진다. 이 작품의 창작 동인에는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역설하고자 하는 의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설생전』에서 오도일은 시종 광해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감추지 않는다. 작품의 서두에 설생은 인목대비가 폐모되자 “윤리와 강상[倫常]이 멀하는데 선비가 어찌 이 세상에 처하겠나?”²⁸⁾라 일갈하며 은거하고자 하는데, 이 대사는 저자 오도일이 인목대비 폐모 사건을 퍽 노골적으로 비판한 대목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논찬부에서 오도일은 광해군 집권 당시를 “昏朝政亂”으로 규정하며 당시 설생이 出處의 도리를 잘 지켰음을 칭찬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스럽고 명철한 군주가 일어나고 못 현명한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는 때”²⁹⁾인 인조 즉위 후에 出仕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평한다. 마지막 막으로 설생이 老聘의 부류인 것은 안타까우나 명예에 구속된 자들을 경멸한 것이 현명하다 하였다.³⁰⁾ 광해군 집권 당시와 인조 즉위 당시를 대조적

27) “贊曰：樂則行憂則違，固君子顯晦隨時之道。”

28) “倫常滅矣，士而奚處世爲?”

29) “聖明中興群賢林立之日”

30) “其視世之終身役乾沒名韉，處污穢而不羞，觸刑辟而不止者，其賢亦遠矣。”

으로 제시하며 광해군이 ‘昏君’이었고 인조반정이 정당함을 『설생전』을 통해 피력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西人은 인조반정을 일으킨 명분으로 광해군의 失政을 내세우면서 결정적인 사건을 폐모 사건으로 들었다. 그런데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노력은 17~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³¹⁾ 오도일은 광해군 재위 당시 폐모론에 반대하였던 吳允謙의 손자로서 西人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³²⁾ 게다가 인조의 계보를 잇는 왕의 치하에서 요직을 두루 지낸 그가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逆臣임을 인정하는 격이어서 오도일이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조반정을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도일이 이 작품을 통해 조부 오윤겸이 광해군과 인조 치하에서 모두 벼슬을 지냈던 것에 대해 변론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설생전』을 제외한 모든 문헌은 ‘벗’을 오도일의 조부 오윤겸으로 기록하고 있다.³³⁾ 오도일은 설생에 대한 이야기를 ‘최성운’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기록하였지만, 아마도 조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그는 조부의 이름을 작품에 명기하지 않고 ‘벗’이라 하여 모호하게 처리하고 ‘隱顯’의 두 갈림길을 상이하게 선택한 두 인물의 삶을 전의 형식으로 엮어냈다. 그리하여 조부가 인목대비 사건 때 바로 물러나지 않고 벼슬에 머물러 있던 일에 대한 혐의찍은 시선을 피해가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설생전』의 창작 동인에 조부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 내에서 ‘벗’을 처리하는 태도와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설생 이야기>에서는 누락되고 『설생전』에서만 보이는 대목은 서사의 앞부분에

31) 한명기, 『17·18세기 한중관계와 인조반정-조선 후기의 ‘인조반정 변무’ 문제』, 『한국사학보』 제13집, 고려사학회, 2002, 10~28면. 이 논문에 따르면 明·淸에서 인조반정을 왕위 ‘찬탈’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肅宗·英祖朝 들어 이를 辨誣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인조는 1726년에야 중국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32) 오윤겸은 인목대비 폐모사건이 일어나자 庭請에 불참하였고, 훗날 이 일로 탄핵을 받은 후에 사직하였다.

33) 신돈복의 『학산한언』·俞萬柱의 『欽英』·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모두 설생의 ‘벗’이 오윤겸이라고 하였으며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오윤겸의 『추탄집』에 이 이야기가 보인다고 하였다.

위치한 ③~⑥ 단락인데, 이 대목은 아래와 같이 설생과 벗을 대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다.

그 벗은 평소 뜻을 함께 하던 선비였으므로 함께 손뼉을 치고 감개하며 時事를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은 이렇게 말했다.

“綱常이 멀어지는데 선비로서 어찌 이 세상에 처하겠는가? 나는 장차 은거하려 하네. 자네도 마음이 있는가?”

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본디 내가 품었던 마음을 오늘 자네가 말해주네. 내가 감히 자네와 함께 은거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부모가 계시니 감히 경솔하게 허락하지 못하겠네.”

그리하여 즉시 헤어졌다.

몇 개월 후, 벗이 설생의 집을 지나는데 벌써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이웃 사는 사람에게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월초에 처자식을 데리고 이사했는데, 무슨 일로 어느 곳으로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벗은 설생이 말한 것을 들었으므로 대강 알기는 했지만 너무 황급히 떠나간 것이 괴이했다. 또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후 먼 산의 벽지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설생의 거취를 탐문했으나 알 수 없었다.³⁴⁾

위의 인용문은 설생만큼이나 벗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용문에 의하면 설생의 벗은 은거하는 삶을 택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어지러운 세상에 깊이 회의감을 느낀 인물이다. 그가 평소 설생과 뜻을 함께했으므로 時事를 논하며 뚝뚝 눈물을 흘렸다는 서술, 설생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본디 내가 품었던 마음[固吾意也]”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설생의 거취를 계속 탐문했다는 내용은 야담 <설생 이야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된 대목이다. 이런 내용들은 독자로 하여금 時事에 대한 벗의 입장과 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 대목이 없는 <설생 이야기>와 『설생전』이 달라지는

34) “其友人者，即平素所同志士也，仍與抵掌感慨，談時事，涕霑霑下也。且曰：‘倫常滅矣，士而奚處斯世爲？吾將隱矣，子其有意乎？’應曰：‘固吾意也，矧今子有言，敢不欲同子而隱，而父母在，未敢輕許。’即別去，閱月，又往過之，家已易主矣，問之隣生何去。曰：‘月初，載妻子移去，不余言用某事去某地。’日其友人，已聞生言，故心識之，怪其行太遽，亦不知其之何也。厥後逢人自遐山僻壤來者，輒究問生去就，莫獲知速。”

지점은 벗이 설생과 마음 깊이 교류하고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인물로 그려지는 데 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설생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다. ‘동시대에 같은 마음을 품었던’ 두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隱’과 ‘顯’의 다른 선택을 한다는 상황 설정은, 입전 인물인 설생과 그의 벗을 대등한 관계로 만듦으로써 작품의 전체적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벗은 ‘몹시 은거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거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부당한 세상을 참지 못하고 떠난 설생보다 많은 것을 감내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듯 벗과 설생이 이렇게 대등하게 그려지면서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룬 연유는 ‘벗’이 기실 오도일의 조부였으므로 그가 광해군 때 은거하지 않고 여전히 벼슬을 지냈던 점에 대해 변호하는 방어적 입장이 반영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논찬부에서 오도일은 설생이 ‘인조 즉위 후에 出仕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평했다. 아마도 설생은 인조 및 인조반정을 일으킨 정치세력에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奇士였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오도일은 이 점에 대해 “의아하다” 하고 따라서 설생은 “老聃의 부류”라고 하여 약간의 부정적 견해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다시 독자로 하여금, 광해군과 인조 치하에서 출사한 ‘벗’이나 두 왕의 치하에서 물러난 설생이나 일장일단이 있을 뿐 어느 누가 도덕적 우위에 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작품의 주제의식이 출처의리인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이 작품은 ‘隱顯’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으며 양자 모두 나름대로 功過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설생전』이 전의 양식을 취하되 야담적 글쓰기를 반영한 까닭은, 이처럼 작품의 창작 동인에 조부를 적극 변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오도일은 전 양식을 취하여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은거를 택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논찬부에서 그에 대해 포폄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적 요소를 강화시켜 설생의 반대편에서 있는 벗을 설생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비중 있게 그려내었다.

그렇다면 작품에 산수유기적 글쓰기를 차용한 목적과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문장가로서의 오도일이 작품의 문학성을 제고시키는 한 방식으로 이

해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오도일 개인의 염원이 투영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설생’을 입전인물로 삼는 『설생전』임에도, 해당 대목은 벗의 시점으로 전개되어 어느덧 山水는 벗의 시선과 감정을 통해 감상된다. 요컨대 해당 대목은 마치 1인칭 시점처럼 서술되어 벗과 작가가 매우 밀착되어 있다.

주목할 사실은 이 대목에서 벗이 짧게나마 超俗의 山水를 유람함으로써 정서적 해방을 느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17세기 이후 관료문인은 山水를, 도학적 의미를 찾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지러운 현실을 잊는 도피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유기에서 山水 공간은 환상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다.³⁵⁾ 『설생전』의 산수 공간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맥을 대고 있다. 회룡굴은 도화원과 같은 탈속적인 공간으로서³⁶⁾ 宦路에 있는 관료가 마음껏 쉬면서 정신적 휴식을 누리는 공간이다. 여기서 ‘환로에 선 관료’는 1차적으로 작품 내부의 주인공인 ‘벗’인바 회룡굴은 그의 시선으로 그려진 공간이지만, 회룡굴은 한편 작가 오도일의 삶과 염원을 투영한 존재로도 보인다.

오도일은 그 자신이 평생 宦路에 있었으며 숙종 재위 당시 政爭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러한 정국에서 관료로 지내던 피로함을 산수에서 씻고자 하는 바람이 『설생전』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대목은 1인칭 산수유기의 형식으로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³⁷⁾

논의를 종합하면, 『설생전』에는 政變 속에서 가문과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려는 의지와 한편으로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산수에서 정신적 피로감을 씻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작품에 보이는 전 양식의 파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35)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官僚文人의 山水遊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면.

36) “蓋古稱桃源橘洲之類也.”

37) 이와 더불어 오도일이 1694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1698년 강원도 양양부 부사를 지낸 이력 및 그가 평소 유람을 즐기고 유람에 대해 문장을 즐겨 썼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회룡굴은 양양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제시되는바 회룡굴에 가기까지의 풍광이나 그 주변 묘사는 오도일이 직접 견문한 바를 바탕으로 제시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오도일의 유람과 시문에 대한 내용은 백승호, 『서파 오도일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v.12, 한국한시학회, 2008, 301~305면)에 자세하다.

III. <설생 이야기>의 傳的 근접성과 주제 의식

1. 『설생전』의 改作的 글쓰기

위에서 정치적 변란 속의 작가의 현실적 입장과 개인적 염원이 전의 ‘신비한 설화’ 수용을 허용하여 야담과의 거리를 좁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야담 <설생 이야기>의 글쓰기 방식을 『설생전』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설생 이야기>는 『설생전』보다 후대에 지어진 작품으로서 『설생전』과 양식적으로 접근해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 신문록이 직접 『설생전』을 상당 부분 <설생 이야기>에 참조했기 때문이다.

위에 <표>로 제시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설생의 인정 정보와 그가 은거하게 된 계기, 이에 대한 ‘벗’의 반응과 훗날 두 사람이 해후하게 된 정황, 설생이 은거해 사는 회룡굴의 모습, 두 사람 삶의 대조적 모습, 설생의 仙家的 풍모와 삶, 후일담까지 각 서사 단락의 진행 순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한 내용 외에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³⁸⁾ 그런데 두 작품은 대화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보인다.

㉠ “내가 항상 유람하며 다닌 곳이 여기만이 아니네. 내 세상과 작별한 이래 산수를 두루 다니는 걸 酷愛하여 다니는 걸 하루도 쉬지 않았지. 서쪽으로 俗離山의 기이함을 찾아가고 북쪽으로 妙香嶺의 絶勝을 살폈으며 伽耶山, 頭流山을 넘나들었지. 무릇 우리나라 산천 중 진기하고 절륜하다고 칭해지는 곳 반은 다 갔네. 우연히 마음에 드는 곳은 풀을 베어 집을 만들고 개간하여 밭을 삼았지. 혹 2년이나 3년을 머물다 즐겁지 않으면 곧장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갔네. 그런 까닭에 나의 거처는 산 기이하고 물 아름다우며 田宅이 평탄하고 드넓기로 여기보다 열 배가 되는 곳이 많네. 다만 세상에 이걸 아는 자가 없을 뿐이지.”³⁹⁾

38) 임완혁 교수는 작품에서 인물 형상·서사 진행 과정·구체적 정황·주제·세부적 대화 내용이 유사하다면 이는 문헌 전승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임완혁,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의 변모 양상 : ‘동해낙송’과 ‘계서야담’·‘청구야담’·‘동야취집’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7, 35~45면).

39) “僕所常遊居往來地, 不獨此爲也. 僕自謝世來, 酷好縱觀山水, 行履不一日間, 西搜俗離之奇, 北眺香嶺之勝, 跨伽耶越頭流, 凡域中山川之用瓌奇絕特稱者, 迹殆半焉. 遇適意處, 輒芟茂而宮焉, 踞陟而田焉, 居或二年或三年, 不樂, 輒移而之他. 以故僕之居, 山之奇, 水之麗, 田宅之夷曠,

㉔ “내 일찍이 유람하며 다닌 곳이 여기만이 아니네. 내 세상과 작별한 이래 마음대로 유람하기를 하루도 쉬지 않았지. 서쪽으로 속리산에 갔다가 북쪽으로 묘향산을 찾아가고 남쪽으로 가야산이며 두류산 승경을 찾아다녔네. 무릇 우리나라 산천에서 빼어나다고 이름난 곳은 죽히 거의 다 갔네. 우연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풀을 엮어 집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해 밭을 일궜지. 혹 2년이나 3년을 머물다 흥이 다하면 곧장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갔네. 나의 거처가 산 기이하고 물 아름다우며 田戶가 화려하고 넓기로 여기보다 열 배가 되는 곳이 많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⁴⁰⁾

인용문 ㉓과 ㉔은 각각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에서 발췌한 것이다. 벗이 회룡굴에서의 생활이 饒足한 것을 보고 설생에게 그 비결을 묻자 설생이 그간의 생활을 들어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두 인용문이 모두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장이 모두 두 내용면에서 일치하고 표현 면에서도 유사하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우선 어휘나 동사, 수식어만 약간 변개해서 쓰여 내용이 동일한 경우를 살펴보자. 예컨대 ㉓의 “西入俗離之奇, 北眺香嶺之勝, 跨伽倻越頭流”와 ㉔의 “西入俗離, 北窮妙香, 南搜伽倻頭流之勝” 두 문장은 ‘서쪽으로 속리산에 가고 북쪽으로 묘향산에 가며 가야산과 두류산도 갔다’는 대강의 요지를 갖고 있으며 ‘搜’, ‘眺’, ‘跨’의 동사를 ‘入’, ‘窮’, ‘搜’로 바꾸어 쓰고 ‘~之勝’ 등의 표현을 쓴 위치를 바꾸었을 따름이다.

제시한 인용문에는 어휘만 바꾸고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다. ㉓의 “輒芟茂而宮焉, 蹈陂而田焉”과 ㉔의 “輒蒼茂而築焉, 闢荒而耘焉”은 “芟茂”를 “蒼茂”로 “宮”과 “田”을 각각 “築”과 “耘”으로 어휘를 바꾸었을 뿐 문장 구조는 동일하다. ㉓의 “凡域中山川之用瓌奇絕特稱者, 迹殆半焉”과 ㉔의 “凡東方山川之以絕特聞者, 足殆遍焉”도 같은 사례다.

其十此者亦夥矣, 特世莫有能知之者.” 신돈복, 『학산한언』, 『韓國文獻說話全集』 8, 동국대학교부설한국문학연구소, 1981. 이하 <설생 이야기> 인용문에 대한 원문은 모두 이 문헌을 참조하였음.

40) “吾嘗遊處往來之地, 不獨此也. 吾自辭世以來, 恣意遊觀, 未嘗一日閑. 西入俗離, 北窮妙香, 南搜伽倻頭流之勝, 凡東方山川之以絕特聞者, 足殆遍焉. 遇適意處, 輒蒼茂而築焉, 闢荒而耘焉, 居或二年或三年, 興盡輒移而之他. 以此吾所居山之奇水之麗, 田戶之華曠, 十倍於此者, 亦多, 但世人莫有知者.”

요컨대 인용문 ㉠과 ㉡에 보이는 약간의 차이는 작가가 선호하는 문체에 따른 결과이고 그 내용과 표현은 기본적으로 서로 매우 근접해 있는데, 이는 양자 간 영향 관계의 緊結性이 문헌을 통한 전승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양자에 보이는 내용, 어휘, 문장 구조의 유사성은 단순히 동일한 설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가 서로 문헌을 참조해 전승되었음은 다음에 제시하는 『서고청소전』과 『동패낙송』에 실린 <서고청 이야기> 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자명해진다.

㉠ 그 어머니는 野女로서 장성해서도 짝이 없었다. 孔巖의 길가에 있는 石竇 안에서 비를 피하는데 懷德 官奴인 徐氏 及唱도 비를 피해 들어왔다가 우연히 만나 마침내 관계를 가졌다. 그리하여 낳은 이가 곧 徐起다. 그 어머니는 서씨 성을 가진 이가 어디 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서기는 동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듣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는 왜 홀로 아버지가 없습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말하니 서기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만 홀로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마침내 하루는 어머니가 비를 피한 동굴에 가더니 종일 그곳을 지키며 몇 년을 보냈다.⁴¹⁾

㉡ 그 어머니는 열여섯 때 상전택 使喚으로 있었는데 한번은 길에서 木綿花를 따다가 비를 피해 巖穴에 들어갔다. 암혈에 어떤 남자가 行擔을 메고 있었는데 역시 비를 피해 들어왔다가 여자를 보고 강간했다. 여자가 막지 못하여 고청을 낳았다. 고청이 여덟 살이 되자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어째서 홀로 없습니까?” 어머니가 실상을 고하자 고청은 암혈로 가서 독서하며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렇게 몇 달을 지냈다.⁴²⁾

41) “其母以野女，年長無匹。遇避雨孔巖路傍石竇中。懷德官奴及唱徐姓者，亦避雨而邂逅。遂交合及生，卽起。其母不識徐姓人之何處人何姓名。起聞里兒之呼父，問母曰：‘吾何獨無父也？’母言其事，起吁曰：‘兒豈獨不知父！’遂日往母避雨石竇中，終日守之者，有年積。” 이규상, 『서고청전』, 초고본 『일몽고』. 초고본 『일몽고』는 안준석 동학이 소장하고 있다. 소중한 자료를 열람하게 해 준 안준석 동학에게 감사드린다.

42) “其母年十六，使喚於上典家，嘗摘木綿花於路傍，避驟雨於巖穴，有一男子負行擔，亦避入見而強奸，女不能拒，生孤青，因守節而居。孤青之八世問曰：‘人皆有父，我何獨無？’母以實告，孤青自此往巖穴讀書，至暮乃還。如是數朔。” 노명흠, 『동패낙송』, 아세아문화사, 1990.

인용문 ㉠과 ㉡은 각각 『서고청소전』과 <서고청 이야기>의 서두로서 서고청의 출생에 대한 일화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설생전』의 경우와는 달리 이 두 작품은 서사의 열개는 비슷하되 세부 내용에 출입이 있으며 표현도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는 서고청의 어머니가 ‘野女로서 나이가 차도 짝이 없었음’을 먼저 얘기하는 데 비해 ㉡은 서고청의 어머니가 열여섯 살 때 使喚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에서 서고청의 아버지는 ‘어디 소속의 누구’로 제시되는 데 비해 ㉡에서는 ‘行擔을 멘 남성’으로 나온다. ㉠에서는 서고청이 동네 아이의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 ㉡은 막연히 여덟 살에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에서 서고청이 다시 ‘나 홀로 아버지가 없구나!’하고 탄식하는 것과 달리 ㉡에서는 곧장 암혈로 찾아가 책을 읽는다. 양자는 ‘서고청의 출생’에 피소드를 다루고 있되 구체적 정황과 사건 전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체나 표현 면에서도 양자는 상이하다. 우선 공통되는 어휘나 문장 구조도 보이지 않으며 사건을 처리한 방식도 다르다. 일례로 서고청 부모의 野合을 ㉠에서 “遂交合及生, 卽起”라고 처리한 반면 ㉡에서는 “入見而强奸, 女不能拒, 生孤青”이라 하여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서고청소전』은 간결하고 질박한 문체를 쓰면서도 겹치는 어휘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데 비해 ‘서고청 이야기’는 ‘而’, ‘因’ 등을 활용해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으나 문체에 간결성이나 응축미는 보이지 않는다.⁴³⁾

위의 분석으로 미루어보건대 『서고청소전』과 <서고청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문헌적으로 교섭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이 보이는 차이와 『설생전』·<설생 이야기>에 나타난 차이는 그 간극이 매우 크다.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는 문체나 내용상에서 서로 근접해 있고 이는 문헌 참조를 통해 생겨난 결과이다. 따

43) 이규상은 전을 창작하면서 奇·簡의 문체를 추구하였다(안준석, 李奎象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 - 草稿本 『일몽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2~54면).

라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야담의 상호 참조 및 전승’을 지목했던 것과 달리 야담과 전이 설화는 물론 문헌을 매개로 서로 참조한 양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⁴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이야기가 문헌을 매개로 양식을 넘나들며 확대되고 재생산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설생 이야기>의 평어에 이 물음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다.

“나는 설생의 이야기를 사천 이병연에게 듣고 이와같이 기록했다. 그 후 尙書 오도일이 지은 『西坡集』을 보았는데 『설생전』이 실려 있고 내 기록과 대동소이하다. 설생은 東方의 異人이 아닌가! 마땅히 세상에 보여서 짝어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하리라. 오도일은 추탄공의 손자이다.”⁴⁵⁾

위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신돈복의 <설생 이야기>는 사천 이병연이 들려준 설화와 서파 오도일의 문헌을 종합하여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돈복은 아마도 이병연을 통해 설생 이야기의 대강을 기록한 후 오도일의 『설생전』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태었으리라 생각된다.⁴⁶⁾

신돈복이 『설생전』을 굳이 참조하여 비슷하게 서술한 까닭은 <설생 이야기>를 기록한 동기가 전의 입전의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신돈복은 평어의 마지막에 ‘설생이 東方의 異人으로 반드시 전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

44) 야담이 전을 수용한 사실을 지적한 연구로는 정명기 교수의 논문이 있으며 여기서 논자는 야담이 전을 ‘현장재현적’ 성격으로 개작하여 전에 비해 허구성이 적다고 하였다(정명기, 앞의 논문, 232~234면). 다만 이 연구는 19세기 야담집 選者의 ‘편찬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洪良浩의 『耳溪集』에 수록된 6편의 전을 『청구야담』 選者가 개변한 양상을 검토한 임완혁 교수의 연구도 있는데(임완혁, 『靑邱野談』을 통해 본 이조후기 서사산문의 역동성, 『한문교육연구』 제18집, 2002) 이 논문 또한 19세기 야담집의 편찬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45) “余聞薛生事於李樑川，記之如此。其後得見吳尙書道一所著西坡集，亦有薛生傳，與余所錄大同小異。余聞薛生事於李樑川，記之如此。其後得見吳尙書道一所著西坡集，亦有薛生傳，與余所錄，大同小異。薛生豈非東國之異人哉！此宜垂示不朽耳。道一，楸灘之孫也。”

46) 『학산한언』이 사실 확인에 꽤 정확성을 기했던 점, 근거 없이 저명한 재상을 이야기속의 인물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또 정작 오도일의 작품에는 ‘벗’을 신원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려내는 동시에 그 입장을 변호하고자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설생전』은 본디 오윤겸의 이야기로서 오도일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으리라 생각된다. 신돈복은 오도일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설생전』을 바탕으로 원 작품을 보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에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고 하였다. 오도일이 누락시킨 ‘벗’의 이름을 굳이 ‘오윤겸’으로 명시한 것도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이 작품의 창작 동기인 데서 연유한다. 아울러 『설생전』에 비해 <설생 이야기>의 문체가 훨씬 간략하고 창작적 묘사도 덜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신돈복이 仙家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산한언』에는 조선 선가의 학맥이 전해지는 내력을 길게 서술한 작품과 조선 신선에 대한 기록이 다수 실려 있다. 즉 신돈복은 조선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선가의 흐름을 泯滅시키지 않고자 노력했으며 <설생 이야기>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신돈복은 설생의 죽적을 후세에 잘 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병연의 이야기를 기록함은 물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도일의 전을 문헌적으로 참고하여 설생의 실제 행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기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설생전』이 ‘전’의 이름을 달고서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내용을 ‘기이한 여행 이야기’의 형식으로 지었다면 <설생 이야기>는 ‘신선 설생’을 부각시켜 전하려는 의도 하에 기록되었다. 요컨대 작가의 창작 동기에 따라 전이야담의 형식에 근접하고 야담이 전의 형식에 가깝게 지어지는 양상을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情欲을 충족시키는 別界’와 異人에 대한 동경

신돈복의 <설생 이야기>는 양식적으로는 전과 근접해있는지 모르나 기실 그 내용과 미적 지향은 『설생전』과 판이하다. 이는 신돈복이 『설생전』에서와 달리 설생과 벗의 관계를 대등하게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생의 벗 오윤겸이 설생을 동경하는 방향으로 서술한 데서 알 수 있다.

<설생 이야기>는 서사 앞부분에서 벗이 평소 설생과 뜻을 함께했다거나 설생이 떠난 후 계속 그의 행방을 궁금해 했다는 서술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두 사람 중 설생만 고결한 의리를 지키는 인물로 보인다. 게다가 신돈복은 서사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서술을 넣었다.

추탄공은 마치 方丈山에 들어온 듯 황홀해 하다가 문득 자신의 관직이 더러

은 것임을 자각했다. (중략) 추탄공이 설생의 시종들을 보니 모두 아름다운 외모에 관악기며 현악기에 능숙했다. 물어보니 다 설생의 첩이라 했다. 가무를 하는 美姬 십 수 명은 모두 젊고 아리따워 더욱 놀라웠다. 설생의 만족스러운 삶을 보자 절로 塵界를 되돌아보게 되어 추탄공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⁴⁷⁾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설생 이야기>에서 벗은 설생의 삶과 그 거처를 무한히 동경하고 있다. 둘째, <설생 이야기>에서 仙境은 은은한 탈속적 정취를 지닌 곳이 아니라 세속적 화려함과 욕망이 자리한 공간이다. 전자에 대해 먼저 논하자면, 『설생전』에서 벗은 설생의 삶을 보고 “한편 기이하고 한편 괴이하게” 여긴 데 대해 <설생 이야기> 속 벗은 자신의 높은 관직이 더럽다고 여기며, 나아가 설생의 ‘得意한 삶’을 보고 이 세상과 비교가 되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다. 벗은 회룡굴에 취하여 설생의 삶을 무한히 부러워할 뿐이다. 이 점에서 작가는 설생을 벗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놓고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작품에는 출처의리에 대한 고민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진다. 그 대신 설생의 이인적 면모와 그에 대한 동경이 전면적으로 다루어진다.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 것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추탄공이 마침 인사권을 쥐고 있어 그에게 작위를 주려 했으나 그는 수치스럽게 여겨 마침내 도망쳐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⁴⁸⁾

㉡ 추탄공이 마침 인사권을 쥐고 있어 그를 천거하여 작위를 주려 했으나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겨 인사도 안하고 떠나갔다.⁴⁹⁾

㉠은 『설생전』의 결말부이고 ㉡은 <설생 이야기>의 결말부다. 거의 비슷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으나 의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설생전』에서 벗이 설생에게 벼슬자리를 주려 하자 설생은 수치스러워하며 “도망쳐 다시

47) “公恍然若入方丈，自覺軒冕之爲穢也。(…)公見生之僮僕，皆俊美，多習於管弦，問之皆生之妾也。美姬歌舞者，十數，皆妙麗。公益奇之，見生得意，自顧塵界，爲之歎歎出涕。”

48) “公適柄銓，欲爵之，恥之，遂逃去不復見。”

49) “公適柄銓，曾欲薦而爵之，生恥之不辭而去。”

는 보이지 않았다[遂逃去不復見.]” 이에 반해 <설생 이야기>에서 설생은 벗의 제안에 수치스러워하며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갔다[不辭而去.]” 『설생전』의 설생이 “도망쳐감”으로써 오도일이 논찬에서 말한바 “의아한” 행동을 한 데 비해 <설생 이야기> 속 설생은 한층 강직한 奇士이자 이인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 부조된다.

아울러 <설생 이야기>에서 ‘仙境’은 일체의 情念이 끊어진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설생전』의 회룡굴이 유가적 超逸함을 추구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설생전』에서 오도일은 회룡굴을 “桃源橘州”라 칭하여⁵⁰⁾ 무릉도원에 비하고, 그 속에서 노니는 설생과 벗의 모습도 깨끗하고 탈속적인 ‘隱士’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설생과 벗이 회룡굴을 즐거워한 까닭은 아름다운 숲과 연못에서 한가로이 노닐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魚鳥나 아름다운 구름 따위였다.⁵¹⁾ 그곳에서 먹은 음식도 ‘몹시 담박하고 맛있는 채소’일 뿐이다.⁵²⁾

<설생 이야기>의 회룡굴은 이와는 상이하다. 벗은 회룡굴을 ‘도화원’이 아닌 ‘방장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설생은 맛있는 채소는 물론 기이하고 향긋한 과일이며 사람의 팔뚝만한 人蓼正果를 내 온다.⁵³⁾ 두 사람이 회룡굴에서 즐기는 것도 맑은 자연에서 유유히 노니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연이다. 게다가 설생은 아리따운 첩도 십 수 명을 거느린다. 요컨대 회룡굴이 별천지인 까닭은 食色の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켜주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돈복은 ‘동방의 이인’ 자취를 남기려 했던 점에서는 전의 입전의식과 비슷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주체적으로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학산한언』은 일찍이 인간 욕망의 귀추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 주목되었다.⁵⁴⁾ <설생 이야기>의 회룡굴이 세속적 욕망

50) “蓋古稱桃源橘洲之類也.”

51) “仍與之翳佳林而坐，旁石磯而漁，婆娑乎林樾，散步乎池塘。魚鳥親人，雲煙悞懷。”

52) “盤蔬來，盤蔬來服之淡甘，甚異塵中味。”

53) “蓼以山味珍蔬，奇果香甘，甚異。人蓼正果，肥大如臂。”

54) 이강옥,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45~47면.

을 추구하는 공간이라는 사실과 벗이 이를 동경해 마지않게 제시된 것은 情欲에 대한 적극적 긍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주제의식이다. 따라서 <설생 이야기>는 설생의 자취를 후대에 최대한 상세히 전달하려 한 점에서는 일반적인 전과 비슷한 창작 동기를 갖고 있으나 기실 담고 있는 내용은 전에서는 담기 어려운 물질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 전과 야담의 거리

본고는 전과 야담의 근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논의된 주요 논지와 새롭게 조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설생전』은 전의 양식적 파격을 보인다. 작품에 이야기투를 쓴 점과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감각적 묘사를引入한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파격적 양식은 입전인물인 ‘설생’보다 ‘벗’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창작 동기 및 주제의식과 깊이 연관된다. ‘벗’은 기실 오도일의 조부 오윤겸인바 오도일은 이 작품을 통해 ‘隱顯’의 기로에 놓인 두 인물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그려내면서 정치적 변란 속에서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뿐 아니라 설생의 ‘회룡굴’을 다녀온 대목이 짙막한 遊記처럼 구성된 것은, 수많은 政變이 있던 숙종 재위 당시 ‘顯’의 입장을 택한 그 자신이 탈속적 공간에서 잠시나마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자 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설생 이야기>는 야담이지만 그 창작 배경에는 전의 입전 동기와 비슷한 의식이 자리하므로 『설생전』에 비해 오히려 주인공인 설생에 집중하여 서사를 진행한다. 더구나 『설생전』을 문헌적으로 참고하였으므로 <설생 이야기>는 『설생전』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설생 이야기>는 설생이 거처하는 유토피아를 통해 정신적 만족 뿐 아니라 情欲 또는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점에서 파격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설생전』에 비해 신비적 요소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 두 작품은 전과 야담의 교섭과 전이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중요한 문학사·정신사적 흐름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설생전』은 정치적 변란의 중심에서 환로를 걸었던 관료의 심적 갈등과 불안감을 투영한 작품이라 규정할 수 있다. 오도일은 정치적 국면이 급박하게 전환되던 숙종 시대를 살아가던 인물로서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가문을 존속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압박감이 『설생전』 창작의 주된 동기라 보이며, 한편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벗어나 山水에서 정신적 피로를 풀고자 하는 욕구가 『설생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생전』은 조선 후기 政變 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문인의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신돈복은 <설생 이야기>를 통해 설생의 이인적 면모를 한층 부각시키고 食色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은, 조선 후기 상당수 야담 작품에서 발견되는 신비주의적 경향 및 정육예의 긍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정신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두 작품이 당시에 서로 경쟁하며 교섭하고 있었던 ‘전’과 ‘야담’이라는 각기 다른 양식 안에 담김으로써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설생전』과 <설생 이야기>는 서로 양식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나 주제의식은 각각 본래적 양식의 전통에 견인되어 있는 작품이다. 전은 야담에 비해 주제의식의 선택에 제약이 많고, 야담은 전에 비해 파격적 주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출사할 것인가 은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던 관료 오도일에게는 추상적인 수준의 고민이라기보다 삶에서 실존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였을 것이다. 더욱이 오도일은 광해군 치하에서 벼슬을 지낸 조부를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창작한바 隱顯을 가치매김할 때 대단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오도일의 관료로서 출처에 대한 고심과 갈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양식은 다름 아닌 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전 양식은 인간형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삶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며 도덕적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전은 논찬부를 통해 자신의 의론을 강화할 수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투를 야

담으로부터 수용하여 기인의 풍모를 띤 설생의 방외적인 행적을 조명하면 서도 그와는 대조적으로 관료의 길을 걸은 ‘벗’의 시각으로 그 은둔의 삶을 추적하며 평가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은 현실옹호적이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설생전』은 그 양식적 파격에 비해 주제의식은 보수적인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주제의식이 사대부 문학의 전통 양식인 전을 택하게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설생 이야기>는 정육에의 긍정과 신비한 이인에 대한 동경을 주제의식으로 삼으며, 상술했듯이 이러한 주제의식은 당시의 사대부 문학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이다. 이와 같이 다소 파격적 주제의식을 담아내는 데는 야담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애초에 야담은 ‘野談’, ‘閑言’, ‘稗說’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공식적이고 잡다한 이야기라고 인식되었으며,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어 그 진실성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야담은 당대의 주류 담론이 아닌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에 유리한 장르라고 생각되며 신돈복은 야담의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상기한 주제를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단, 작가는 ‘동방의 이인’으로서 설생의 자취를 후세에 남기고자 작품을 창작하였으므로 이 작품은 양식적으로는 오히려 전과 맞닿아 있다. 요컨대 <설생 이야기>는 양식적 실험성이 돋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욕망의 내용은 파격적이므로 이러한 주제의식에 따라 야담 양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양식 간의 교섭을 살필 수 있는 한편 각 양식이 여전히 고유하게 담당하였던 기능과 그 가치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盧命欽, 『東稗洛誦』
辛敦復, 『鶴山閑言』
吳道一, 『西坡集』
俞萬柱, 『欽英』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奎象, 草稿本 『一夢稿』

2. 단행본

-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73.
임형택 편 『한문서사의 영토』 하, 태학사, 2012.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2001.
_____,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2, 2001.

3. 논문

- 강혜규, 「18세기 산수유기의 轉變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65집, 한국한문학회, 2017, 225~250면.
김군태, 「전의 장르적 고찰」, 『우전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189~226면.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657~669면.
김준형, 「야담의 문학 전통과 독자적 갈래로 변진」,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85~414면.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官僚文人의 山水遊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희병, 「야담과 한문단편 장르 규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8집, 한국한문학회, 1985, 321~326면.
_____, 「한국한문학에 있어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1989, 31~44면.
_____,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한국산수기(韓國山水記) 연구 -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217~223면.
- 박희수, 『동계 조귀명 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백승호, 『서파 오도일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2집, 한국한시학회, 2008, 150~157면.
-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안준석, 李奎象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 - 草稿本 『일몽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강욱, 『조선후기 야담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_____, 『초기 야담집 학산한언의 서사지향 연구 : 현실지향과 비현실지향』,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333~382면.
- 임완혁,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의 변모 양상 : ‘동패낙송’과 ‘계서야담’ · ‘청구야담’ · ‘동야회집’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7.
- 임형택,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창작과 비평』 13권 3호, 창비, 1978(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2001)
- 정명기, 『전과 야담의 잇물림』, 『한국언어문학』 제33집, 한국언어문학회, 1994, 219~234면.
- _____, 『‘청구야담’에 나타난 전대문헌 수용양상 연구』, 『淵民學志』 제2집, 연민학회, 1994, 311~359면.
- 정환국, 『한문소설사 서술의 제문제 -한문학에서의 한문소설, 그 사적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제64집, 2016, 119~158면.
- 조태영, 『전양식의 발전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_____, 『전의 서술양식의 원리와 그 변동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2집, 경기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467~484면.
- 조희용, 『조선후기의 문헌 설화 연구 : 계서야담 · 청구야담 · 동야회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 진재교,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 전, 야담, 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101~135면.
- 하지영, 『王世貞과 조선 중 · 후기 한문 산문』,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197~232면.
- 한명기, 『17·18세기 한중관계와 인조반정-조선 후기의 ‘인조반정 변무’ 문제』, 『한국사학보』 제13집, 고려사학회, 2002, 9~41면.

Comparative Studies on Two Variations of 'Seolsaeng' Story

Chung, Sol-mi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genre distance between the Jeon(傳; biography) and the Yadam(野談; unofficial story) by contrasting two different stories that deal with the same material. One is 'Seolsaeng jeon', written by Oh-Doil(吳道一: 1645 ~1703) and another is 'A tale of Seolsaeng' written by Shin-Donbok(辛敦復: 1692 ~1779). Both works share a common protagonist, Seolsaeng, a hermit, and also very similar storylines.

'Seolsaeng jeon'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format of Jeon, as it is composed of both story and comment parts. However, on close inspection, 'Seolsaeng jeon' can be seen to incorporate the writing styles of Yadam and also Yuki(遊記: journal of a travel), thus demonstrating some modifications and combination of genre. Of course, this genre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its theme of the text. As the author's conflict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ment(出處), or eminence and seclusion(隱顯), is a main theme of this work, he chooses the Jeon as a main genre to lead the narrative. Other genres are introduced in order to reflect the writer's frustration and fear in the sensitive political situation.

'A tale of Seolsaeng', on the other hand, is stylistically close to the Jeon genre, even though it is an example of Yadam, since the motive for the writing is very similar to typical Jeon. However, the theme of 'A tale of Seolsaeng'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main subject of 'Seolsaeng jeon': it focuses on the earthly desire and mysticism, not the conflict between seclusion and eminence. It deliberately erases the main theme of 'Seolsaeng jeon' and switches it into an unconventional theme.

By analyzing these two different works, this paper concludes that although active genre movement can be seen in the late Chosŏn dynasty,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works have been maintained. The two different work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can demonstrate the Jeon and the Yadam's typical thematic features, despite the format of the texts having been modified.

keywords: 'Seolsaeng jeon', 'A tale of Seolsaeng', Genre Movement, Jeon, Yadam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게재결정: 2018. 5. 10.